

실속 재테크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연봉·신용등급 올랐다면 1% 혜택

비상장기업→상장기업 이직·자격증 취득 등 조건 변동 3개월 후부터 가능·年 2회로 제한

직장인 김경동(32)씨는 지난해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30% 가량 더 올랐다. 신용등급도 더 올랐지만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그대로 적용됐다.

사의 신용도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적용대상이 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활성화된다.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 통상 1%포인트 안팎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금리 산정이 제각각인데다 고금리 논란도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하자 시중은행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별로 세부조건에는 다소 차이를 있지만 ▲신용등급 향상 ▲직장 내 승진 ▲안정적인 직장(상장기업,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으로 이직 ▲연소득이나 자산이 15~20% 이상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금융권 부채 20~30% 이상 감소 ▲은행 우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주거래 등급향상 등에 해당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이럴 때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 비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이직
▶ 전문자격증 취득·신용등급 상승
▶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의 2배 증가
▶ 해당 은행 내 예금 등 수신 30% 증가
▶ 금융권 총 부채의 30% 이상 감소
(자료: 우리은행)

단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는 개인 신용도와 함께 담보가치가 반영되는데 개인 신용도 변경만 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만 해당된다.

기업대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은행이 기업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부채비율 개선, 전년 대비 30% 이상 당기순이익 증가) ▲영업이익률 관련 특허 취득 등이 해당된다.

절차는 간단하다.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금리인하의 대상이 되는 증빙서류를 금리인하신청서(가계대출용) 및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함께 준비한 뒤 대출 관련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금리인하 신청시점은 대출의 신규나 증액, 기타 조건 변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신청 횟수는 연 2회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리인하요구권=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취업이나 승진, 재무상황 등 개인의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마트 원두커피 출시 31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하이메 까발 콜롬비아 대사와 이마트 관계자 등이 '콜롬비아 칼다스 원두커피'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미·광주공단 동시 착공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0>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⑥

자녀들 취업 약속에 지주들 앞장서 땅 내놔

▲지주들에 기공 승낙서 설득

광주공단건설추진위와 광주시장이 이문환 아시아자동차 사장에 게 공장 건설부지 선정 및 매입에 관한 각서를 전달한지 4일 뒤인 1966년 5월 27일 광주시는 광천동과 삼부동 일대를 자동차 공장 건설 후보지로 확정했다. 아울러 같은 날 광주시와 추진위는 광주시 서부출장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 관내 동장과 출장소장 책임하에 지주들로부터 자동차공장 기공 승락서를 받기 위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추진위와 광주시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1963년부터 전후 3차례에 걸쳐 이문환 아시아자동차 사장과 정부 요원에 자동차 공장의 광주 유치를 거도적으로 견디는 끝에 대통령의 확약을 받게 되었고 이문환 사장에게 각서까지 써주고 부지 매입을 약속한 마당에 이제 와서 지주들과 지가보상 줄다리기로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공리 끝에 나온 방안이 지주들을 설득, 먼저 공장 건설 기공승락서를 받아내기로 했던 것이다.

▲사흘만에 목표면적 초과 달성

광주시와 추진위로서는 그럴만한 대의명분과 자신감이 있었다. 근대산업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차 공업이 광주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고도산업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발전으로 지역 소득기반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문환 사장은 공장이 준공되면 최우선적으로

지주 자녀들의 취업 보장을 공인했다. 이 보장은 예상 밖 설득 효과를 발휘했다.

이로 말미암아 설득작업 3일 만에 5월30일에는 유덕동, 광천동 일대의 지주 354명으로부터 618필지 118만7495㎡(35만9847평)의 기공 승락서를 받으므로써 목표 면적을 초과 달성하였다.

▲공업단지 조성 계획지구 고시 뒤어 건설부는 1966년 7월 25일 건설부령 2605호로 광주시 광천·상무·유덕·농성동 일대 약 264만㎡(80만평)에 공업지역 지정결정을 고시하고 9월30일에는 이중 아시아자동차 건설용지 105만6749㎡(32만227평)와 중소기업단지 38만883㎡(11만5419평), 도합 143만7632㎡(43만5646평)를 공업단지 조성 계획지구로 고시(건설부령 제 2773호)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1966년 12월 16일 광주공업단지와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동시에 착공되었다. 자본금 8억원과 이탈리아의 자동차 업체인 피아트사의 차관 1250만 달러로 건설되는 아시아자동차는 피아트 승용차와 픽업, 버스 등 연산

8000대의 생산규모를 갖 추게 된다.

위중 (연론인)

골든브릿지저축銀 BIS6% 초과달성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유상증자와 후순위예금 유치 등 자본확충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03%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4일 후순위예금 3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25일 30억원 추가 유상증자하는 등 이달 중 60억원을 유상증자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늘 후순위예금을 유치해 BIS비율이 6%를 넘겼다"며 "안정된 재무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대출 미끼 휴대전화 개통 주의보

개통후 '요금폭탄'...광주·전남 14건 피해

#. 광주에 사는 30대 이모씨. 지난 7월 휴대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단말기 대금 등 이용금액은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뒤 아무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해 준다는 말에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씨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100만원 넘게 청구 받았다.

금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대출이나 현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요금폭탄'을 떠날

기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본부장 김종남)가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대출 혹은 현금 지급 미끼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피해사례는 전국 136건 중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14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3건, 부산·울산·경남 18건, 대전·충청 6건, 강원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상담 유형별로는 '대출 조건 휴대

전화 개통 피해'건이 92건(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지급 조건 휴대전화 개통 피해'가 44건(43.4%)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휴대전화 개통사기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지 말 것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휴대전화 SMS 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 것 ▲명의도용 혹은 명의대여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해 해결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상담 및 문의 소비자자원 광주본부 062-975-6899.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2012 이문세 붉은노을 목포' (2012 Imwonse Red Sunset Mokpo). It features a silhouette of a man in a tuxedo against a red and orange background. Text includes: '세상이 기다리던 행복한 Party가 시작된다', '2012 이문세 붉은노을 목포', '11.9(금)~10(토)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 and '문의 1588-0766 예매 티켓마루, 인터파크'.